

로컬뉴스



이리중앙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이리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2년 연속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이리중앙라이온스클럽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주말을 반납한 채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이리중앙라이온스에서 지원하는 연탄배상자는 익산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다. 이날 회원들은 평화동에 살고 있는 세대를 비롯하여 10세대에 2,000장을 전달했다.

김남식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익산시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쳐겠다"고 했다.

한편 이리중앙라이온스클럽은 1984년부터 창립, 올해 제33대 김남식 회장이 취임 되었으며 4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 사회의 시민, 문화사회 및 도덕적 분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 모현동 '희망동행 협의회' 도지사 감사패 수상

익산시 모현동 희망동행지역사회보장협의회(공동위원장 김성도, 안병진)가 21일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개최된 '희망 2017나눔캠페인' 행사에서 송하진 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오후 전라북도청 광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희망 2017나눔캠페인'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모현동 희망동행 협의회는 익산시 착한가게 1호점 탄생과 복지허브화 정착을 위한 정기기부(CMS)기탁 활성화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감사패를 받았다.

모현동 희망동행 협의회는 복지허브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7월에 26명으로 발대식을 갖고 맞춤형복지 홍보, 어려운 어르신위안 행사, 집수리봉사활동, 전동기구 교체, 반찬나눔 행사, 자원발굴을 위한 정기기부(CMS)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열린시장 열린군산' 어린이 리포터 위촉식 개최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시가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어린이 리포터를 위촉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어린이 리포터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열린시장 열린군산 어린이 리포터 위촉식'을 개최해 5명의 어린이 리포터에게 위촉장 및 리포터증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은 어린이 리포터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일년간 함께 활동하게 될 리포터단과 소통의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현직 기자의 '현직기자가 들려주는 기자 이야기'를 통해 리포터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 어린이리포터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리포터단은 앞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과 지역축제, 문화행사, 역사·명소 탐방 등을 취재해 시장 소식지인 '열린시장 열린군산'을 통해 군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양원 군산부시장은 "앞으로 군산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큰 꿈을 가지고 학교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내년도 예산 1조원 육박

일반회계 8428억원 · 특별회계 1197억원 등 9625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올해보다 322억원 증가

익산시 내년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예산으로 일반회계 8천 428억 원, 특별회계 1천 197억 원 등 9,625억 원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세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3,183억 원으로 37.8%에 달하며, 농업 분야가 1,17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677억 원이다.

이번 예산은 소외계층 지원, 시민

불편사항 해소,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골목예산 사업은 지역 내 영세 시공업체와 연계 추진으로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화포장 마을인길 및 농로 포장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289억 원, 노인 및 누릴자리 등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77억 원 기타 공영 및 하수도

민원 해소, 교통안전 분야에 57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국체전 경기장 리모델링에 11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38억 원, 미륵사지 관광지조성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141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절감액 1.6억원을 포함한 27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편성하여 부채 감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익산시 예산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익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 될 예정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해경, 동절기 음주운행 강력단속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 음주 의심되는 선박 감시 강화키로

군산해경이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음주운행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9일 오전 9시20분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7.93톤급 어선 선원 A씨(39, 전남 목포)를 해상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항내에서 배를 옮기던 중 정박된 다른 어선과 부딪히면서 해경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조사과정에서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1일 군산시 육도면 무너도 남쪽 약 1.8km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0.5톤급 모터보트 운전자 B씨(54, 군산)가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단속됐다.

이에 해경은 겨울철 기상악화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승선한 선박의 경우 선내



음주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해 의심되는 선박의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운전자 교통계장은 "음주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해상 음주운행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라오디코리아 글로벌 산학협력 MOU 체결

원광대학교와 중국 국영기업 라오디그룹의 한국법인인 (주)라오디코리아가 글로벌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중국 대형 국영기업인 라오디그룹은 중국지질과학원(지질)을 기반으로 1992년 8개 국영기관 및 기업을 통합해 광산 탐사 개발, 공정설계, 탐사, 도로·교량·터널·공항건설, 부동산 개발, 지역개발, 지질재해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법인 계열사와 33개 분야별 전문 업체 및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라오디그룹은 충남 당진에 6,100여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 짓고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원광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은 조인배 (주)라오디코리아 대표이사 와 원광대 송문규 LINC사업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라오디그룹의 6,100여 국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를 연계한 현장실습과 글로벌 산학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인배 대표이사는 "명문 사학인 원광대와 산학협력력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원광대 LINC사업단과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저소득가구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겨울철 저소득가구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

처)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지난해에는 군산시 저소득층 431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이나 임신부를 포함하는 가구로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요양자, 등 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혜자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모교 희망특강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사진) 21일 모교인 군산여중을 찾아 전교생 9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서 박 의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할 수 있다"란 주제로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의장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는다는"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

박 의장은 어린 시절의 경험담과 의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 없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세계는 지금 여성의 능력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자 정치지도자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비결 뒤에는 정직과 겸손, 대화와 화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공감 그리고 포용의 리더십이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빛을 받고 있다"며 여성이던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비전은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며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는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특강에 앞서 기초의원 선출방법과 의무와 임기, 의회의 지위 등 기초의원이란 무엇인가와 군산시의회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병원, 저소득층 가정 연탄 나눔 봉사 활동

겨울을 맞이하는 초입,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결에 차가운 기운이 물어난다. 가난한 겨울이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추운 이웃들이 많다. 지난 19일 원광대학교병원직원 일동이 지역 내 불우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마다 매서운 동장군이 찾아오면 부족한 연료비에 추운 겨울 한철나기가 너무 버거운 지역 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원광대병원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원광대병원은 교직원 후원회인 원누리 후원회와 교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마련 한 연탄 1만8,220장(일급1,056만 6,960원)을 저소득층 가정 및 불우이웃 78세대에 나눔 후원 봉사를 했다.

또한 최두영 병원장을 비롯 원광대병원 임직원 70여명은 익산시청 복지청소년원과,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의 추천을 받아 가내 사정이 여의치 않은 6세대에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 세대당 300장씩 집안 내까지 연탄을 운반, 정리까지 하는 봉사 활동을 펼쳤다.

원광대병원 직원들은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시구들에 나온 대목처럼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 볼 수 있는 나눔의 현장을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본원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본연의 길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공기관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누리 후원회는 지난 2010년 출범한 원광대학교병원의 사회봉사 단체로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 해외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우 의료비 지원, 독거노인 방문 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 오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연계 한 각종 공익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교직원들 비록 현재 50여명의 후원회원이 가입하여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정책세미나

지역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21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법관에서 '2016년 익산시 사회복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지영 익산시부시장과 민간 복지시설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민·관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공공과 민간의 협치 활성화 방안 모색' 기초 강연으로 시작된 세미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에 따른 민·관의 역할정립과 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 공공에서는 익산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채수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민간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과 강동호 교수가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영 익산시부시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민과 관이 뜨겁게 소통하고 민주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교육

군산시는 21일 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주민자치위원과 담당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박경순 이사과 한국농민인협회 김양욱 전북본부회장을 초청해 '지역공동체 운동과 마을자치문화', '스피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리더로서의 창조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주민자치문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양원 군산부시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원동력이 되기 바란다"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자립형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2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64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중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해소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174개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